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박 이 배

나누는 삶을 통해서 얻는 내 자신

2003년 2월 이날은 세 명의 서로 다른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한 명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한 명은 없는 것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또 한 명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인간과 지상만물의 모든 정신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주고받음(수수작용)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그리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인간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가장 생물학적이면서 가장 동물학적으로서 자신의 개체를 지키고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이기적이면서도 남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요.

이것은 바로 내가 행복하고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나 이외의 것에 베풀며,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세상의 자그마한 진리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



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해야 되기에 일어나고, 먹으며, 사람들과 적당히 관계하며, 갈등하며, 타협하며 시간이 되면 퇴근하고, 다시 내일 일을 위해서 잠자리로.....

이런 반복된 생활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 내 모습이 때로는 밟고 답답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누구나 느끼고 만질 수 있는 희망을 봅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서 베푸는 자신의 조그만 사랑이 현대사회 속에서 잃어만가는 자신의 가슴속 부분들에 많은 의미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ですよ.

그것이 일상에서의 또 다른 탈출구가 아닐까요?

그리고 받는 이는 그 소중한 사랑을 또 다른 이에게 베풀겠지요.

저는 이번 골수기증을 통해서 오히려 내 자신에 대하여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누는 삶을 통하여 행한 나의 행동이 내 자신에게도 많은 것을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나는 어제 했던 일을 다시 오늘도 반복할 것이며, 오늘 했던 일을 내일도 할 것이며, 그 다음날도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짐합니다.

자칫 실망스러울 수 있는 자신의 반복적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도 나눔에 대한 조그마한 저의 고집스러움을 꺾이지 않겠다고요.

끝으로 골수 수혜자가 빠른 시일

내에 완쾌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세상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보고 느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서영숙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헌혈만 하고 가지말고 이것도 한 장 써주고 가세요.”

“네?, 이게 뭔데요?”

“응, 골수기증서약서인데 확률이 낮아서 연락 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난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래요?...볼펜주세요”

1999년 봄이었던가, 자주 들리던 서울역 헌혈의 집에서 안면이 익은 나이 많은 간호사님의 권유로 한 장의 서약서를 쓰고서 나왔었다. 그리고선 1년 후 봄에 뜬금 없는 전화가 걸려왔다.

“골수은행협회인데요, 혹시 서약서 쓰셨던 거 기억나세요?”

“아...네...”

드디어 남들은 10년을 기다려도 소식 없던 골수기증이 벌써 나타난 건가 싶더니 Y2K로 새로 등록확인 작업이라는 것이다. 혹시나 했던 마음

뒤에 어떡하지 했던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지나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바쁘게 지내던 내게 다시 전화가 걸려 온 것도 그 후 1년쯤 뒤였다...1월 이었다.

“안녕하세요. 한국골수은행협회 양성희 라고 하는데요...” 지난 경험으로 그냥 확인이겠거니 했던 전화는 “매칭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서요..아직도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요..”라는 말로 시작했다. 처음은 약간 긴장했지만, 나타났다는 사실이 신기했을 뿐 마음에 변화가 없던 나였으므로 무리 없이 입원까지 진행되었다.

주위에선 -대부분 병원에 있는 사람 들이면서도- 진심 어린 격려 외에도 외려 남을 위한다지만 어떻게 몸에 손을 댈 수 있을까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사실 평소의 헌혈도 걱정스러워했던 우리가족의 놀람은 더했으니까... 그러나 이미 결정한 내 선택에 묵묵히 따라 주실 뿐이었다.

또한 결심과는 달리 처음 해 보는 일에 낯설고 조금은 두렵기도 했던 마음은 골수은행협회에서 나온 코디네이터분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태도로 금새 사그러 들었다.

오전 첫 스케줄로 수술실에 들어가

때 보았던 병원 천장의 무서우리만큼 차가웠던 인상만 빼면 수술 또한 그리 무섭진 않았다. 오히려 담당과장님과 의 작은 실갱이가 벌어질 정도였다.

처음 전신 마취를 고집하던 난 그것이 골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에 지고 만 것이다.

회복실을 거쳐 입원실에서 수술 후 부작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우려했던 대로 척수 마취가 덜 풀린 상태라 인공도뇨를 통해 소변 본 일만 빼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했던 것 같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가만히 누워있지 못해 결국 모래주머니를 대고 더 오래 반듯이 누워 있었던 걸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정작 힘든 건 수술보다도 12시간을 내내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게 더 큰 고통일 것이다.

새벽부터는 혼자서 일어나 화장실도 다녀오고 창에 기대 서있을 수도 있게 될 정도로 회복은 빨랐다.

새벽 여명을 보며 문득 골수를 받았을 아이가 생각나서 이렇게 편지글을 썼던 기억이 난다.

누군가의 글에서처럼 휘어 굽어진 나무일수록 더 많은 비바람을 받고

더 많은 눈을 이고 있어야겠지만 그 나무만은 다른 나무들이 모르는 더 많은 걸 이해하고 살 것이라고...

이제 수술을 한지도 가물거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 지금 내 체력은 누구보다 강하다.

오히려 수술 후에 험한 겨울 지리산을 거뜰히 오르내릴 정도로 튼튼해져 아마도 산에서 산삼을 혼자 캐먹는 것 같다고 식구들의 눈총을 받을 정도로 건강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다른 이에게 그저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나누어준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로 인해 나의 삶도 항상 따뜻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마음을 전해 받는 것인 것 같다.

이제 또다시 내게 기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손수 재혈액을 샘플 해가지 않을까 싶다.

-강남구 역삼동 지디스내과 소화기
내시경센터 서영숙 간호사-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오수현

순간의 아픔보다 더 소중한 사랑의 나눔

5월말 골수협회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난 골수 기증후의 안부와 원고를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였다. 사회생활 하느라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골수 기증에 대해 다시 한번 어렴풋이 기억이 되살아났지만 무슨 칭찬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원고까지 부탁을 하느냐며 사양했으나 협회 담당자님의 간청으로 글재주 하나 없는 내가 원고까지 쓰게 되었으니 민망할 따름이다.

대학과 군시절 몇 번의 헌혈을 한 이후로 한번도 헌혈을 안하다 결혼 후 집사람과 뜻깊은 일을 찾던 중 생각한 것이 장기 기증(뇌사시 장기기증)과 헌혈이었다.

그래서 장기 기증 신청서에 서약을 하고 새천년을 맞이하여 1년에 헌혈을 10회 이상 하기로 마음먹고, 헌혈의 집에서 혈장 헌혈을 하던 차에 간호사로부터 골수 기증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생각의 여지도 없이 신청서에 동의하게 되었다.

집사람은 임신과 출산으로 헌혈을 중단했지만, 나는 한달에 1~2번씩 헌혈을 하던 중 2002년 가을에 골수기증협회로부터 나와 골수 유전자와 일치하는 환자분이 있는데 골수 기증을 바란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부모님께는 비밀로 부치고, 집사람과 상의하여 골수 기증동의서를 작성하였

다.

기증동의서를 쓴 이후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 혈액 샘플 채취부터 수술까지의 시간이 환자에게는 길다면 길고 일반인에게는 짧다면 짧은 5개월의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수술날짜는 2003년 새해 무렵, 그러나 수술날짜가 장인의 회갑과 일치하느라 협회에 양해를 구해 약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자 1달 후에는 가능하냐며 물어봤다. 그때는 이상 없을 것이라 했지만 내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아 환자와 그 가족, 또한 협회에 대단히 죄송스러웠다. 그러나 1달 후 이번에는 환자의 상태가 안 좋으니 이번에는 내게 1달 뒤로 미루자고 하였다.

드디어 1달 후 수술날짜가 잡혔다. 겨울이 끝나고 새봄이 시작되는 계절이라 거리의 사람들이 생기가 넘쳐흘렀다. 그러나 병마와 싸우고 있을 환자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수술이 성공하여 그 분도 예전의 밝은 웃음을 되찾기를 기도했다. 수술 며칠전 회사에 휴가계를 쓰고 나올 때 잘 다녀오라던 직원들이 고맙고, 그 기간동안 나의 빈자리를 대신해 줄 직원들에게 미안함도 있었다.

수술전날 오후에 자랑스럽게 입원을 해서 난생 처음 환자복을 입을 때 그 기분은 정말 뭐라 말할 수 있을까.



건강이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무용지물이거나 생각하며 나를 낳아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렸다. 수술전날 저녁은 할머니의 제사가 있었지만 부모님께서는 회사일이 바빠 참석 못한다는 거짓말로 안심시켜드리고 잠을 청했으나 긴장이 되어 잠도 제대로 못이루고 새벽에야 눈을 좀 부쳤다.

이른 아침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8시에 수술실에 들어가 마취에서 깨어나니 정오 가까이 되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둔부에 지혈대를 고정시켜 놓아 꼬박 4시간을 목석처럼 누워있어야 했다.

수술의 아픔보다 지혈의 아픔이 더 한 것 같았다. 수술 다음날은 생일날이었는데 새벽 4시에 법당에 가서 절을 하고 싶었지만 허리가 말을 안들어 목례로 대신하고 이식수술의 성공과 환자의 쾌유를 빌며 부모님과 집사람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퇴원하는 날 고맙다며 감사패를 주시며

감기, 몸살로 불편한데도 배웅해 주신 이영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수술 후 1주일 동안은 조금의 부자연스러움이 있었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은 별로 못느끼고 있다. 지금의 불편함이 한 사람의 아픔에 비할바 못되지만, 순간의 아픔은 한날 사치로 느껴질 뿐이다. 이제 미루어 놓았던 헌혈도 다시 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2차, 3차의 골수 기증을 하도록 하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망설임 없이 기증할 것이다.

임신 중이라 병원에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항상 남편 생각에 용기를 북돋아 준 집사람에게 감사를 드린다.

만일 자신의 가족 중에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있다면 과연 당신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1년에 1200명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후천적으로도 많이 생긴다 하니 과연 누구에게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아직까지 30만명 이상의 기증자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약간의 관심과 젊은이들의 기증의사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 추천하고 싶다.

기증자분들에게는 진심어린 존경의 박수를, 환자들에게는 용기를 잃지 말라는 파이팅의 박수를 힘차게 쳐본다.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오 재 석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조지연 코디네이터님께 처음 연락을 받고 들었던 말. '2살의 아이'.

한때 성직자가 되려던 제게는 마음 속에 성구가 있었어요.

“모두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모두 사랑하여라.”

큰 시련이 지나간 이후로 전 스스로 부정하며 지냈습니다. 신의 존재 또한 부정하며 방탕하게 지냈지요. 이제 알거 같아요. 그 말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요.

월드컵이 끝나고 잠실 헌혈버스에서 헌혈하면서 우연히 제눈에 들어온 골수기증등록 팜플렛을 보았어요. 주저없이 등록하게 되었죠.

그때의 그 순간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라면, 참 좋았을 것어요. 이제서야 다시 회상해볼 뿐입니다.

4월 00일.

머릿속엔 4월 00일만 맴돌고 있었어요.

'4월 00일... 무서울거야. 아프겠지. 괜찮아. 난 할수있어! 설마 부러진 손가락 맞추는것 보다 아플까? 설마 마취 안하고 손가락 네바늘 꿰매는 거보다 아플까? 그 정도만 안한다면

내가 할수 있는건 할수 있어!!'

코디네이터님께 연락을 받고 인터넷으로 골수기증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기증자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면서 확고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주위사람들은 저를 말렸죠. 심지어 병원 일을 하는 친구너석도 골수기증이 아프다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구요. 점점 사회가 냉정하다지만 이렇게까지 냉정할까 하는 의구심도 생겼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퇴원하구 힘차게 다니는 저를 보면서 잘못된 상식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기증일이 다가올 때 환절기마다 걸리는 감기가 저를 괴롭혔죠. 다행히 감기도 저를 도왔죠. 그리고 회사에서 조리장님도 감기 걸린 저를 배려해 주었구요. 주위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처음 들어가 본 수술실.

차가운 공기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들의 모습에 강해지자던 제모습이 서서히 무너져 갔지만,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예쁜신 간호사님들 모습에 그 긴장도 풀리고 마취한다는 소리를 듣고 산소마스크를 쓰는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회복실이라고 하



해서 계속 걸어다니도 멀쩡하구요. 약간의 통증이 있다지만. 제겐 왜 그게 느껴지지 않는걸까요?

다만 엉덩이에 남아있는 9개의 주사바늘이 제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 밥 챙겨먹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구!”

사람들은 골수기증을 끔찍할 정도로 생각하는것 같아요. 헌혈을 자주하는 사람도 골수기증에 대해선 부정적이거든요.

“왼손이 한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구가 있죠?

하지만 전 아니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달려가서 말하죠.

“나 몇일전에 골수기증했어!!”

이렇게 주위에 알리고 있습니다. 골수기증은 누구나 할수 있고, 아무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계속 그럴것이에요.

골수기증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했나요? 사랑의 실천. 참 좋은것 같습니다. 제가 속썩었던 골수은행협회 관계자분들께 죄송하구요. 2살의 꼬마. 어서 빨리 완쾌하여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고 싶어요.

세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더군요. 수술언제 하나구 물어보니다 끝났다고 하더군요. 놀랬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수술이 끝났다니.

그렇지만. 가장 힘든 고통이 남아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서 참아야 하는 배고픔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 모래주머니 뽐 때까지 밥을 못먹었거든요. 하지만 다른분들은 더 늦게까지 밥을 못드셨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참을수 있을지. 너무 멋지신 분들이죠.

그렇게 4월 〇〇일은 흘러갔습니다. 벌써 수술한지 5일이 지났어요.

지금의 저는 어떻냐구요? 퇴원하구 2일 지나구서 학교 친구들과 농구2시간을 해도 멀쩡하구요. 걷는걸 좋아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최 현 락 (남, 27세, 사랑의 교회 대학부 전도사)

8년만에 보내는 성탄카드



여러 해 전에 난 지금은 나에게 편지를 보낼 수 없는 이에게 마지막 성탄 카드를 받았다. 백혈병 말기인 내 친구는 링겔병을 4개나 꿰고 휠체어에 앉은 채 나를 맞이해 주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그렇게 병원봉사활동을 나가서 만나게 된 친구였다.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나가게 된 백혈병 소아암 병동에서도 아이는 알아주는 개구쟁이였다. 나와 그 아이는 함께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기도도 하는 동안 서서히 정이 들어갔다.

아이와 그렇게 정이 들어가는 사이, 아이의 병은 깊어져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 버리고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다. 그렇게 맞이한 성탄절에 아이는 나를 자신의 성탄절 축

제에 초대해 주었다. 성탄절에 만난 아이는 휠체어에 앉은 채 입술조차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나에게 성탄 카드를 한 장 내밀었다. 카드에는 나와 함께 놀아주고 잘 대해 줘서 고맙다고 아주 큰 글씨로 쓰여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한 달을 걸려서 쓴 카드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눈물이 났지만 내가 울면 아이도 마음이 약해져서 따라 올라 싶어 꼭 참았다. 아이는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성탄을 나와 함께 보낸 후 그 해 겨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아이의 얼굴을 더욱 뚜렷하게 떠올리게 하는 편지 한 통이 2년 전에 나에게 배달되었다. 편지는 나에게 골수기증을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시골집으로 배달된 편지를 나보다 앞서 보신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어 토요일 아침에 나에게 전화를 하였고, 나는 어머니께 한국골수은행협회 전화번호를 여쭙어 보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으신 분에게 언제 검사한 기록이냐고 물으니 6년 전의 기록이라고 했다. 6년 전 아이들에게 골수를 기증하고 싶어 채혈한 적이 있는데, 그 기록이 그때까지 남아 드디어 짝을

찾아 연락이 왔던 것이다. 기증 의사를 밝히고 얼마 후에 채혈을 했다. 나의 골수를 받을 아이와 나는 3만분의 1의 확률로 그렇게 만났다. 순간 6년 전 나에게 마지막 성탄 카드를 건네 주었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해 성탄절에 아이에게 성탄절 선물은커녕 카드도 없이 맨 손으로 갔던 일이 기억났다. 내내 마음이 걸렸었는데, 이번에 그때 못했던 성탄 선물을 내 친구가 아닌 다른 아이에게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성탄 선물을 할 기대로 2년 여의 시간을 기다린 끝에 골수를 기증했다. 실로 8년 만에 성탄 선물을 하게 된 것이다. 시골에서는 내가 골수기증을 하는 동안 병실에서 나를 간호해 주시려고 어머니께서 올라 오셨고, 친구들과 교회의 성도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병실을 찾아 주었다. 내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인생관이 변화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생명을 일생토록 나누어주며 살고 싶은 소망을 싹틔울 수 있었다. 난 이 소망의 길을 모두가 함께 걸었으면 한다.

골수 기증을 하고 난 후, 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한국골수은행협회 담당자 분께서 아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 주었다. 순간 8년 전 휠체어에 앉아 나를 맞이해 주었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그리고 난 기도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나와 함께 이 생명을 나누는 소망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그 아이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얻고 환하게 웃게 되는 날이 오게 해 달라고 나는 기도했다. 참으로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해 준 나의 친구들과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참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 드린다.



(편집자 주) 성도 :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